
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1. 1. 14.(목) 배포</p>		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대입정책과	담당자	과 장	조훈희	(☎ 044-203-6368)
			사무관	신민규	(☎ 044-203-6367)
			교육연구사	김도균	(☎ 044-203-6366)

수험생 진로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운영됩니다.

- 언론사명 : 조선일보
- 보도일시 : 2021년 1월 14일
- 제목 : 선택과목 경우의 수만 816개 ... 난수표 수능

<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2018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의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기본 원칙은 ▲2015 교육과정의 문·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▲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, 선택권은 강화할 것 ▲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 등입니다.
- 이에 따라, 국어·수학·직업탐구를 공통+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수험생 부담을 완화*할 수 있도록 하고, 사회/과학 탐구의 문·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·적성·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(예) 국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가 4개→3개(공통2+선택1)로 축소

- 국어·수학 영역에서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·불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점수 조정을 통해 최종 점수가 산출됩니다.

※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, 선택과목의 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음

- 이와 같은 수능 체제 개편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각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형 지원 시 준수해야 할 '2022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기준'을 제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수험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활동 결과 및 대학에서 제시한 응시영역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.

< 서울 소재 ○○대학 사례 >

유형	모집단위(예시)	2022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기준	
Ⅱ	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/농업생명과학대학 등	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탐구 <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> 서로 다른 분야의 I+Ⅱ 및 Ⅱ+Ⅱ 두 조합 중 선택 (예) 물리학 I + 화학Ⅱ, 생명과학Ⅱ + 지구과학Ⅱ 등 단, 동일 분야 I+Ⅱ 미인정	[수학선택] 미적분/기하 중 택1 [탐구선택] 과학탐구 8과목 중 택2

- 우리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난이도와 배점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각 대학별 전형계획이 수험생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전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.

